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요셉의원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2년 6월 제 **122-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홍근표**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요셉의원**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진료 정상화 따라 찾아가는 서비스도 모색’ 외로운 쪽방촌 독거노인과 ‘초기 노숙인’에 관심



코로나 확진자나 위중증 환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대폭 완화되며 사회 전반의 분위기도 활기를 띠고 있다. 본원 역시 봉사 의사들이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각 부서별 일반 봉사자들도 상당수 확충되면서 진료 상황이 거의 정상화됐다.

신완식 본원 의무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강화되던 때는 하루 평균 20~30명 진료를 하다 지금은 치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들며 본원의 낮진료와 저녁 진료가 모두 정상화돼 환자들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사진 왼쪽은 1층 접수실, 오른쪽 위는 2층 대기실, 아래는 봉사자들이 쪽방촌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는 모습.

과를 포함해 60~70명 선으로 늘었다”고 말하고,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올해 말이면 진료 환자 수가 90명 내외로 코로나 이전 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주 간호팀장은 “이미 3월 중순부터 저녁 7시부터 시작하는 저녁진료까지 정상화돼 정신의학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 진료도 원활

122-1호
주요
소식



요셉의원 진료 정상화

1



요셉의원 소식

5



후원의 손길

8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10



국성회 소식

13





본원은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해와 올해 초 2층 환자 대기실 의자를 새로 바꾸는 등 1층과 2층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해 진료 환경을 개선했다. 사진은 신원식 의무원장이 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반 자원봉사도 문의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사태 전에 비해 봉사 자원면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박상옥 행정지원실장은 “두 달 전부터 요셉의원 홈페이지를 통한 자원봉사 문의와 신청이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보다 두 세 배 늘었다”며, “이전에 많이 참여했던 성당 레지오 팀들이 단체활동 제한으로 주춤한 데 비해, 최근에는 소속과 무관하게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자원봉사 신청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무료 급식소 문 열면서 노숙인 왕래 활발

본원의 진료 시스템은 정상화됐으나, 진료 환자 수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 아직 적은 편이다. 전에는 환자 분포에서 영등포 지역 환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나 지금은 3분의1에서 4분의1 수준으로 집계된다.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오는 환자가 약 절반이고, 나머지는 경기도 등 타 지역 환자 및 외국인 환자들이 포함된다.

신 의무원장은 “이 지역 쪽방촌 주민이 한 때는 400명 정도 됐으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외지로 떠나 지금은 250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쪽방촌 사람들을 비롯



본원 인근 무료급식소들이 5월 초부터 급식을 재개하면서 이곳을 찾는 노숙인들도 늘어나, 본원도 목욕서비스(월~금,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를 재개했다. 사진 왼쪽은 무료 급식소인 '토마스의 집', 오른쪽은 본원 목욕실 청소 모습.

한 노숙인들이 떠나게 된 큰 원인은 코로나로 인해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닫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지난 5월 초부터는 천주교 계열 급식소인 ‘토마스의 집’을 비롯해 개신교와 불교 등에서 운영하는 급식소가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지역의 노숙인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

이런 상황 변화에 맞춰 본원은 6월 초부터 목욕 서비스(매주 월~금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를 재개했고, 이발 서비스도 봉사자가 확보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줄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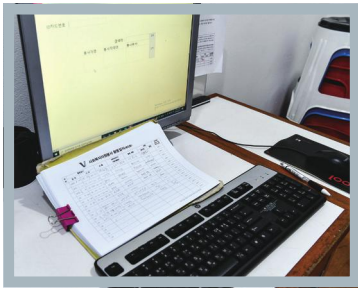
본원에서는 코로나 사태 이후의 진료나 자활 서비스에 대해 그동안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특히 요셉나눔재단법인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임 5개월째를 맞는 본원 홍근표 신부는 “초창기 선우 경식 선생님이 의도하셨던, 가난한 환자에 대한 진료를 포함해 여러 가지 기초 생활에 필요한 지원들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우 선생님은 주일 등을 이용해 뜻을 같이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의료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시골의 사회복지시설까지 찾아가는 진료를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쪽방촌이든 고시원이든 길거리 노숙인이든 의료법상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볼 생각입니다.”

이같이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들을 찾아가 지원하는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진료 등에서는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이고 수요가 얼마나 되는가를 파악해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이런 아웃리치 서비스는 일부 제한사항도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원 사회사업실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첫 단계로 현재 주변 쪽방촌을 방문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못 오거나, 혹은 아파도 외부와 접촉을 꺼려 병원을 찾지 않는 독거 노인들을



최근에는 본원 홈페이지를 통한 자원봉사 신청 건수도 크게 늘었다. 사진 왼쪽부터 자원봉사자 출퇴근 체크 프로그램과 안과 검사 장면, 약국에서 약 복용법을 설명하는 모습.

방문해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민광한 사회사업실장(수녀)은 “연세대 의대와 간호대 연합동아리인 ‘의청’ 자원봉사자들이 2인 1조로 월요일마다 일곱 가구를 방문해 말벗을 하면서 거주자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하고, “이분들에게 건강 상의 문제가 생기면 간호사가 방문해 상황을 판단한 뒤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체부자유자나 폐쇄적인 성격 등으로 인해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영양상태도 좋지 않은 수가 많아 음식을 준비해서 도시락을 전달하는 방법도 시행 중이다.

‘초기 노숙인’에 대한 밀착 케어 확대 예정

노숙인의 정의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약간씩 기준이 다르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거리 노숙인) +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시설 노숙인)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만화방, 사우나, PC방, 쪽방 생활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쪽방촌 거주자 같은 ‘정착 노숙인’과 달리, 갑자기 거리로 내몰린 ‘초짜 노숙인’들은 노숙 환경에 익숙지 않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심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홍 신부는 관심을 기울일 대상 중 하나로 이렇게 갑자기 파산하거나 사업에 실패해 가족이 해체되고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을 꼽았다.

“자의든 타의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거의 노숙을 할 지경에 이른 이들은 정신적으로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갑자기 거리로 쫓겨난 사람들은 어디서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잘 몰라 끼니를 못 챙겨 실신하거나, 폭행 혹은

자살 등으로 목숨을 잃을 위험도 높지요. 그래서 무연고 사망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좌절의 위기를 넘기고 쪽방촌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이들은 적어도 자살과는 거리가 먼 안정권에 들어선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알코올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또다른 과제를 던져준다. 홍 신부는 “갑자기 생활기반을 잃고 거리로 나온 이들의 경우, 잘 보살피면 알코올에 빠지는 위험을 줄이면서 다시 자활할 수 있는 계기를 더 쉽게 마련해 줄 수 있다”며, “이런 초기 노숙인에 대한 상담과 밀착 케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법인 출범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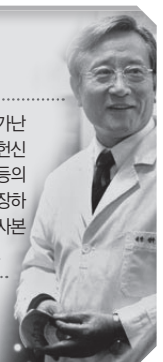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법인화와 재개발 등 외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본원은 운영 면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좀 더 알차고 따스한 손길을 펴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홍 신부는 “진료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제2의 진료소가 필요할지 혹은 장소의 제약을 넘어 새로운 서비스를 펴야 할지 검토와 구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어떤 형태든 선우 경식 선생의 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 알려드립니다

‘선우경식 선생의 유품을 찾습니다’

본원 설립자인 선우 경식 선생 기념사업 준비팀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선우 선생의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의 발자취를 되새기기 위해, 생전에 남기신 유품과 편지 등의 각종 기록물, 사진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소장하고 계신 선우 선생 관련 기록물이나 유품들의 원본 혹은 사본을 기증해 주시면 기념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 락 처 : 02-2634-1760(내선 258, 251)
 보내주실 곳 : (07306)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0길 6
 요셉의원 '선우 선생 자료수집 TFT'



쪽방촌 향기

“선우 선생님님이 뿌린 씨앗 다섯 배, 열 배로 불어나”

선우 원장님의 송고한 뜻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도 처음엔 냄새나는 환자들의 옷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기 힘들었지만, 자세히 진료하기 위해 때로는 변이 묻어있는 바지와 양말을 벗기고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초

본원 봉사의
건국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지난해 5월 LG복지재단으로부터 LG 의인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48년 동안 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것이 선정 이유라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복사를 서면서 자연스레 성직자의 꿈을 키웠던 나는 의사로 45년을 살아오면서 의대 학창 시절에 시작한 의료봉사 활동을 지금까지 계속해 오

고 있습니다. 사제가 되고 싶어 소신학교 생활을 5년이나 했지만 결국 의사가 된 것은 본래부터 그분의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본과에 진입한 1973년에는 사제 성소를 저버렸다는 미안함으로 가톨릭학생회(CaSA) 선배들을 따라 서울 변두리 소외 지역 주말 진료 봉사에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CaSA 회장으로 선출된 나는 서울 변두리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던 주말 진료 봉사에서 벗어나, 난곡지역에서 김혜경(사라) 사회사업가와 함께 고정된 주말 진료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1977년 의사가 되어서는 시흥 전진상의원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해, 군의관 시절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45년째 봉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요셉의원이 막 문을 열었던 1987년 9월, 병원 동료 정신과 교수를 통해 선우 경식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림시장 안 허름한 2층 건물에 자리잡은 요셉의원 식당에서 선우 원장님을 뵈었는데, 시장 특유의 냄새와 노숙인 환자들로 인한 고약한 냄새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들과 맛있게 식사하시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우 원장님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누면서 원장님의 순수한 봉사 정신과 사람을 끄는 해맑은 웃음에 이끌려 바로 요셉의원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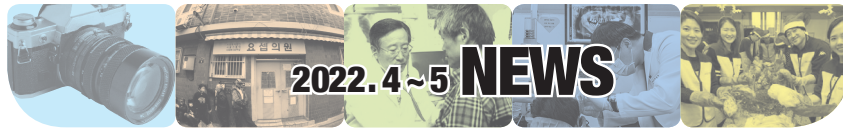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만을 해왔던 전진상의원 진료와 달리, 노숙자, 술꾼, 행려병자들에게는 진료에 앞서 먹을 것, 입을 것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선우 원장님의 송고한 뜻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냄새나는 환자들의 옷

과 양말을 벗기기 힘들었지만, 자세히 진료하기 위해 때로는 변이 묻어있는 바지와 양말을 벗기고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신경 검사를 통해 의뢰한 정밀 영상검사에서 디스크 탈출증, 척추 종양, 뇌종양 등이 진단되고 수술까지 해서 완치된 환자들을 보면 크나큰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런 기쁨을 느끼면서 오늘날까지 35년째 요셉의원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우 원장님과 인연은 요셉의원 원장과 봉사자의 관계에서 환자와 주치의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2006년 5월 셋째 일요일에 선우 원장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성당에 갔다가 오른손이 마비되고 언어장애 증상이 생겨, 간호사를 통해 내게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집에 있던 나는 급성 뇌경색이나 뇌졸중의 시작 증상으로 판단해 건국대병원 혈관내수술팀을 소집하고, 응급실과 영상의학과에 연락해 준비를 시키고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선우 원장님은 뇌자기공명검사(MRI) 결과 여러 개의 급성 색전증이 좌측 전두엽, 두정엽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 뇌혈관조영술에서 좌측 내경동맥이 90% 정도 막혀 있어 내경동맥 협착에 의한 뇌색전증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런 진단에 따라 대기 중이던 혈관내수술팀이 즉시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해 막혔던 뇌혈류가 4시간 만에 회복되었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완치되었습니다. 이후 요셉의원 원장으로서 1년여 동안 직무를 잘 수행하시다가 빈혈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원인으로 위암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항암치료 도중, 안타깝게도 2008년 4월 18일 새벽에 선종하셨습니다. 새벽 1시경 선우원장님의 여동생이 급히 전화해 오빠를 바꿔 주었는데 “고 선생, 머리가 너무 아파!”라는 말이 마지막 말씀이 되었습니다. 통화 후 2시 경 건대병원 응급실로 오셨을 땐 이미 혼수상태였고 뇌단층촬영에서 광범위한 뇌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망 직전에 다행히 고용복 교수님과 연락이 되어 성모병원으로 옮겨 그곳에서 선종하셨습니다.

선우 원장님 같이 훌륭한 분을 하느님께선 왜 그렇게 일찍 불러가셨는지 당시로서는 이해가 안되었지만, 선우 원장님이 뿌린 씨앗이 다섯 배, 열 배로 불어나고 있는 오늘의 요셉의원 모습을 보면서 어렴풋이나마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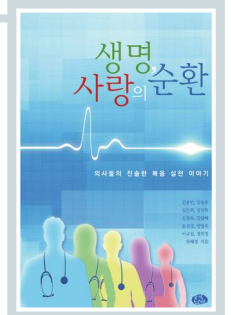
2022.4~5 NEWS

김용민 봉사의, 공저 <생명, 사랑의 순환> 펴내

본원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김용민 정형외과 전문의를 포함한 11명의 의사들이 최근 복음적 일치와 사랑의 실천 체험을 <생명, 사랑의 순환>(벽난로 간)이란 책자로 엮어냈다. 저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의 와중에서 '서로 간의 사랑과 모든 이의 일치'를 목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창설된 포콜라레(Focolare) 영성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이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신앙과 영성생활 +환자와 보호자, 병원 동료, 병원 밖에서의 경험담 +국내외에서의 공익활동 등을 생명의 치유와 유지를 통한 '사랑의 순환'이란 명제로 담아냈다.

충북대의대 교수직을 버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가로 나서기

도 했던 김 봉사의는 3년 전 자전적 에세이 겸 국내외 의료봉사 경험을 적은 <땀장이 의사의 국경 없는 도전>을 펴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현재 경찰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김 봉사의는 여건상 수술 치료가 어려운 본원의 허리병 환자를 경찰병원에서 수술받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지난 3월에는 무릎 활액막 연골종을 앓고 있는 본원 환자의 딱한 사정을 자신의 SNS에 소개해, 이를 본 부천 건주병원 서영무 원장이 인공관절 수술을 해주는 등 복음적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예다함 상조, 후원금 기탁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인 The-K예다함상조(대표이사 오승찬) 권대일 전무를 비롯한 임직원 4명은 6월 22일 본원을 방문해 임직원 급여 끝잔 모금액을 포함한 1천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The-K예다함상조 권대일 전무는 이날 본원 신완식 의무원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며, "코로나 상황은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경제 여건은 오히려 점점 위축돼 가고 있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저희들의 정성이 병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he-K예다함상조는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사랑(愛)다함 기부금을 적립하여 2017년부터 매년 본원을 후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



"기회 닿는대로 봉사대열에 동참"

국제로타리 3650지구 새한양 로타리클럽(회장 고석호) 회원 10명은 6월 20일 오후 본원을 방문해 회원들이 모은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고, 세 시간에 걸쳐 본원 4층 의료창고의 짐들을 정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고석호 회장은 "클럽 맴버인 김정용 회원이 오랫동안 요셉의원 접수 봉사를 해온 데 감동받아 요셉의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하고, "코로나 이후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정기적으로 봉사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위장원, 민창기 회원, 홍근표 신부, 신완식 의무원장, 고석호 회장, 윤상구, 김남희, 성연진, 김도연, 신중배, 김정용 회원.

"선우 원장님처럼 봉사하는 사람 될래요"

지난 6월 3일 서울 구로3동성당 부설 골별유치원 교사 세 명과 원아 29명이 본원을

방문해 신완식 의무원장으로부터 가난한 이들의 건강과 자활을 위해 헌신한 본원 설립자 선우 경식 선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쌀 130Kg을 기부했다. 최베로니카 원장수녀는 "5월 성모의 달을 맞아 원아들이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주일 동안 쌀 모으기를 했다"고 소개하고, "원아들이 자라서 선우 원장님처럼 가난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기르자는 인성 함양 차원에서 요셉의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원아들은 본원 각층을 둘러보고, 3층 경당에서 가난한 이웃들의 건강과 요셉의원의 발전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 돌아갔다.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미사 봉헌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국성회) 후원 미사가 2년 만에 재개됐다. 6월 14일 오전 10시 30분 본원 3층 경당에서 홍근표 신부 집전으로 진행된 이번 미사에는 국성회 후원회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후원회원들은 미사 뒤 지난 2년 간의 성경 보급 성과를 보고받고, 홍 신부와 함께 점심 식사 겸 모임을 가졌다. 국성회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사와 모임을 갖는다(관련 기사 14쪽).

봉사자 코너



본원에서 환자 상담하는 이은림 봉사자

“봉사가 아니라 배우는 기쁨입니다”



본원에 처음 오거나 2년이 지난 환자는 건강 상태 점검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기초적인 신상 문제와 생활 상담을 한다. 이런 상담을 통해 진료는 물론 기초수급 정보나 법률 지원, 거처 주선 등 필요한 도움을 주기도 한다.

지난해 초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상담 봉사를 나오는 이은림 봉사자는 “잘못된 국제결혼이나 사기에 휘말렸어도 법에 어두워 피해를 키우고, 당장 머물 곳이 없는 분들이 있다”며, “요셉의원에서는 이런 사정을 세세하게 살펴 환자를 돕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고 말했다.

“살아가면서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많은 이들의 수고와 만물을 키워내는 자연의 섭리랄까 커다란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우연히 요셉의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한 이들에게 의술을 베풀다 돌아가신 선우경식 원장님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바로 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그가 상담 분야의 봉사를 자원한 것은 대학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해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술 담배가 구강 건강 해쳐..., 양치질 제대로 해야”

본원 환자상담실에서는 일반 진료 상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치과 상담은 월요일과 수요일에 예약제로 실시하고 있다. 치과 상담 대상은 기초수급자로서 만 65세 미만인 분들의 틀니 장착을 돕고 있다. 이 봉사자는 “나이에 제한이 있는 이유는 만 65세 이상은 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나이가 적은 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0대 나이에 치아가 거의 없는 분들이 계셔서 놀랐습니다. 술과 담배의 영향도 크거니와 양치질을 거의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이 봉사자는 “치아 문제로 식사를 못해 몸이 상하고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무척 안타깝다”며, “그래서 요즘은 상담하면서 치아가 없어도 양치질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술과 담배가 구강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려 노력한다”고 말했다.

치과 상담을 주로 해서일까. 그는 치아 상태가 삶의 많은 부분을 말해주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들에게 의료와 생활 지원 이외에 마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부모 교육의 중요성’ 새삼 깨달아

어려운 이들이 자존감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몸 돌봄’에서 나아가 ‘마음 돌봄’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화되면 공부와 상담 봉사를 하며 오랫동안 자기계발, 소통, 부모교육, 글쓰기 등을 강의해 온 경험을 살려 폭넓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 봉사자는 ‘부모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는 “모든 정신적인 문제의 근원은 부모”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육아로 자녀를 망치는 부모들이 많다”며, “부모가 달라지면 아이가 달라지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부모교육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며, 관련 도서의 출판과 기부도 계획하고 있다.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좀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

환자스토리



‘수급 반납하고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이은재 씨

“요셉의원이 생명의 은인이지요”

스스로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하는 환자 이은재 씨(57)는 “요셉의원이 상급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고, 틀니 치료도 무료로 해주는 큰 은혜를 베풀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 씨가 말하는 은혜는 사실 헌신적으로 무료 진료를 해주는 여러 봉사자와 많은 후

원자들의 몫이다.

이 씨는 학창시절부터 시작해 60을 바라보는 최근까지 질병으로 인한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중학교 때 피부에 건선 비슷한 것이 생겨 한센병 치료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봉대를 감고 다녔더니 학교 선배들과 동네 건달들이 ‘문둥이’라며 마구 때려 결국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집을 나와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파란만장한 청년기를 보냈다. 부산의 양돈농가에서 일하다 돼지 파동이 터지자 경기도 양주의 양계장으로 옮겼고, 참치잡이 원양어선을 타고 타히티 근해까지 가기도 했다.

“냉동어창에서 시간을 넘겨 생선을 정리하다 손에 동상이 걸리는 바람에 한동안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지요. 배에서 내린 뒤에는 그릇공장, 가방공장, 탈의실 관리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다 1991년도에 중국요리집에 취직해 웨이터 일부터 하며 조리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듬해 서울로 올라와 한식과 경양식 집 등에서 일하며 다양한 조리법을 익힌 그는 이후 30년 가까이 요리사나 주방장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중간에 몇몇 여성을 만나 사귀기도 했으나 결혼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여성들과 만나면서 돈을 좀 쓰다 보니 빚만 늘었다.

“카드 빚을 못 막아 신용불량자가 된 뒤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그 바람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병원에도 못 가고 약값만 잔뜩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전립선암과 그에 따른 요실금, 고혈압, 호흡곤

란, 양쪽 고관절 통증, 무릎 부종, 잇몸 종양 등 8가지 질병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젊어서 막노동을 하며 몸이 상하게 됐고, 나이가 들면서 그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난 것 같다는 것.

“2년 전부터는 소변도 제대로 못 보는데다 무릎과 고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 거의 일을 못했어요. 초음파검사서 전립선 암 징후는 없으나 피검사나 소변검사에서는 암 수치가 나타나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쯤에는 돈도 없고 너무 아파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세상을 뜨자고 결심했지요.”

그러던 중 무료 병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을 검색해 지난해 9월 처음 내원했다. 이때부터 혈압약을 처방받아 혈압을 낮추고, 본원에서 발급받은 의뢰서와 노숙인센터가 발행한 노숙인 증명서를 가지고 보라매 병원에서 전립선 치료와 잇몸 종양 제거 수술 등을 받았다. 요즘도 본원을 찾아 약 처방과 한방 침 치료를 받는 그는 지난 2월부터는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게 돼 상황이 한결 나아졌다. 본원 치과에서 위 아래 틀니를 장착한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100여 만원을 선뜻 내놓기도 했다.

“이제 죽겠다는 생각은 접었습니다. 요셉의원 덕이지요. 건강이 좀 더 회복되면 수급 자격을 반납하고 돈을 벌어 남아있는 빚도 갚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후원도 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

후원의 손길



본원 방문해 1천만 원 기탁한 이옥훈 후원자

‘하느님 사랑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분들께
깊은 감명받았습니다”

1988년 미국으로 이민 가 30년 가까이 생활하다 귀국한 이옥훈 후원자는 얼마 전 잠시 미국에 갔을 때 본원 소개 TV 다큐 프로그램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꼭 기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자원봉사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감동을 받

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요셉의원을 찾아가 후원금을 전했습니다.”

4월 하순 동생과 함께 본원을 찾은 이 후원자는 개인으로서 적지 않은 1000만 원을 선뜻 기탁했다.

이 후원자는 무엇보다 무료 진료를 나온 의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기쁘게 일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다시 봉사를 하시는 분들마다 나름의 뜻과 생각이 있으시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는 무엇으로 사랑을 실천할까 생각하다 후원금을 기부하기로 했지요.”

미국에서 남편과 함께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며 2녀1남을

키웠다는 이 후원자는 자녀들이 미국에서 치과의사와 식품의약품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후를 고국에서 보내고 있는 그는 앞으로도 후원이 필요한 곳을 찾아 ‘작은 힘’을 보탬 예정이다. +

선우 경식 선생 고교 후배 모임에서 4년째 후원

“나이가 들어 봉사활동 대신 후원금으로 대신합니다”

본원 설립자인 선우 경식 선생의 서울고 후배 가톨릭 모임에서 4년째 해마다 150만 원씩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 후원금을 전달한 이 모임 윤진석 총무(78)는 “1년 선배인 선우 경식 선생을 고교 때부터 어렵פות이 알기는 했으나, 나중에 요셉의원을 설립해 좋은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들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모임에서 봉사활동을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나이가 들다보니 몸을 쓰기보다는 후원금을 보내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장을 역임하고 은퇴

한 뒤 현재 요셉의원에서 무료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김승남 회원이 후원을 추천해 모두들 흔쾌히 동의했다는 것.

1964년도 16회 졸업생인 이들은 지난 1997년 카사16(Casha16)이라는 가톨릭 동기 모임을 결성했다. 처음에는 남자 동기들만 모이다 몇 년 뒤 부부 동반 모임으로 발전했다. 지금은 부부 22쌍이 매월 첫 번째 토요일 오후 6시 대치동 한티역 부근 김성학관에서 지도신부를 모시고 미사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25년째 돈독한 정을 이어오고 있다.

유한구 현 회장은 “선종하신 이병문 신부님에 이어 여형구 신부님을 모시고 피정과 성지 순례를 하며 신앙과 친목을 다져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특히 ‘소년의 집’ 아이들과 대부모 결연을 맺어 이들이 장성해 성가정을 이루며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큰 기쁨 중 하나”라고 밝혔다. +



회원들이 5월 모임을 하고 미사를 드린 뒤 기념촬영을 했다.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2년 4월~5월)

- Sangwook Han ● 강서영 ● 강태승 ● 구연철 ● 김겸주 ● 김경대 ● 김근용 ● 김나운 ● 김다은 ● 김범중 ● 김선헌 ● 김석준 ● 김세동 ● 김세은 ● 김영숙 ● 김옥분 ● 김유리 ● 김윤섭베드로 ● 김윤정 ● 김은애 ● 김은정 ● 김재형 ● 김정임 ● 김정화 ● 김종명 ● 김주형 ● 김지연 ● 김지우 ● 김지호 ● 김차희 ● 김철우 ● 김하은 ● 김한결 ● 김현우 ● 김혜린 ● 김효원 ● 남지인 ● 독고명희 ● 명승환 ● 문은정 ● 민호원 ● 박강용요셉 ● 박성래 ● 박세은 ● 박영자 ● 박우진 ● 박윤주 ● 박정배 ● 박정애 ● 박종순 ● 방진영 ● 백진영 ● 변애희 ● 변해영 ● 빅미주 ● 서상범 티토 주교 ● 송정분 ● 심영실 ● 안민수 ● 안상모 ● 양웅준 ● 양정복 ● 여은아 ● 오경숙 ● 오병은 ● 오유미 ● 오유택 ● 우재연 ● 유성란 ● 유영창 ● 윤경미 ● 윤경희 ● 윤규민 ● 윤서준 ● 윤창은 ● 윤창중 ● 이근열 ● 이남희 ● 이다인 ● 이달용 ● 이명숙 ● 이미자 ● 이상곤 ● 이선경 ● 이수진 ● 이순득 ● 이승권 ● 이승우 ● 이승환 ● 이신애 ● 이연숙 ● 이영미 ● 이영현 ● 이영호 ● 이영호 ● 이원욱 ● 이윤관 ● 이은빛 ● 이인곤 ● 이인해 ● 이인호 ● 이재석 ● 이재원 ● 이재형 ● 이정아 ● 이종금 ● 이창엽 ● 이천상 ● 이철민 ● 이충복 ● 이치림 ● 이태인 ● 이해린 ● 이현숙 ● 이호준 ● 이화남 ● 임다솔 ● 임덕보 ● 임은숙 ● 장병희 ● 장성엽 ● 전화우 ● 정성은 ● 정소영 ● 정일광 ● 정진호 ● 조미영 ● 조영애 ● 조종태 ● 주은경 ● 지미애 ● 지승훈 ● 최민서 ● 최서영 ● 최용선 ● 최유리



- 최은영 ● 최인혜 ● 최 준 ● 최준호 ● 한혜준 ● 홍명주 ● 홍성민 ● 홍승범
- 홍정호 ● 황광호

+ 후원금을 처음 보내신 단체 (2022년 4월~5월)



- 수암교회 ● 전주교구구성소국 ● 주식회사 린인터내셔널 ● 코스모스
- 행복공학재단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2년 4월~5월)



- 고창요셉농원 : 오디 2상자 ● 김은숙 : 쌀 10kg ● 상무농원 : 사과 5상자
- 엠투포유 : 두유 1상자 ● 유니상사 : 초코파이 1상자 ● 유해* : 한라봉 1상자
- 음성군쌀농협조합 : 쌀 20kg ● 이동우 : 커피, 녹차, 차 2상자
- 이현주 : 쌀 10kg ● 익명 : 광천김 5상자, 쌀 30kg, 두유20상자 ● 자연드림 : 생수(해양심층수) 48 상자, 소금 5봉지 ● 전영화 안나 : 오이 1상자
- (주)바리의꿈 : 두유(320팩) 5상자 ● 피스오브헤븐 : 유기농 롤케익 2상자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제 일동 : 과일 2상자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2022년 4월~5월)



- 권희문 : 양말, 스타킹, 벨트 2세트 2상자 ● 김 * 환(군포시) : 의류, 칫솔(6개) 1상자 ● 김진숙 : 옷 1상자 ● 김찬승 : 옷 1상자 ● 김태우 : 수건 10장 ● 박 * 경(부산) : 의류 1상자, 마스크 50매 ● 사랑의집 : 남자 속옷 1상자 ● 유경동 : 마스크, 신발 1상자 ● 유신재 : 상의, 하의, 벨트 등 4상자 ● 이 * 익(송파구) : 옷 1상자 ● 이경민(연지근지 기부자리) : 옷 1상자
- 이경범 : 발가락양말 11켤레 ● 이종익 : 의류, 신발 2상자 ● 익명 : 옷 1상자, 속옷 4상자 ● 정덕이 : 옷 1상자 ● 진계숙 : 의류 1상자 ● 채숙경 : 옷 2상자
- 최 * 자(동작구) : 옷 1상자 ● 최 * 희(광진구) : 옷 1상자 ● 한 * 정(용인시) : 옷 2상자 ● 홍다영 : 여성용 속옷 1상자 ● 홍순애 : 의류 1상자 ● 황 * 영(용인시) : 옷 1상자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2022년 4월~5월)



- 권혁준 신부 : 휠체어 1대 ● 비타민엔젤스 : 나눔비타 ● 이 * 주 : 파스(30매) 20통 ● 익명 : 류마스탁쿨에스플라스타 ● 하나제약 : 노마로크 외 25종
- 한미약품 : 한미오메카3맥스 외 3종 ● 한철원 : 시네츄라 시럽 외 12종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2022년 4월~5월)



- 배관랜드 : 마스크94 1900장 ● 영등포우체국 : 치약, 비누세트 각 1상자 ● 익명 : 페이스가드, 손소독제, 마스크 각 1상자, 방역물품 2상자, 마스크 500매, 알코올 1상자 ● 정정희(용인시) : 잡화(치약, 치솔, 샴푸) 1상자 ● 정종재 프란치스코 : 샴푸 2상자(48개) ● 정희선 : 종이컵 1상자 ● 허윤진 신부(가톨릭대학교) : 마스크94 2000장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박찬수(내과)
강희송(응급의학과)
이서윤(한외과)
- 약 사 : 신가식
- 간호사 : 김은실 · 이경현 · 이민희
황지옥 · 황현수
- 임상병리사 : 조승희
- 치과위생사 : 김진경 · 박지영
- 사회복지사 : 오은경
- 일반봉사 : 김소영 · 김진형 · 김희주
박성용 · 박현수 · 서현진
송하준 · 이예원 · 이해원
조연경 · 천근희 · 최승원
최지현 · 한서연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

- 도로시의 집 ● 서울시여성보호센터
- 수선화의 집 ● 아름다운 공동체
- 이일순 ● 쪽방나눔(315가구)
- 천주 섭리 나눔의 집 ● 청년식당
- 카자흐스탄 의료봉사 ● 카프병원
- 토마스의 집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2년 4월	1,147 명
2022년 5월	1,331 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2년 5월 말 현재)

721,141 명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4~5



필리핀 요셉의원 소식



김다술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필리핀 가난한 학생들에게 ‘꿈’을 선사했어요”

서울 청담동성당 태블릿 PC 160대 기증



서울 청담동 성당에서 보내준 태블릿 PC를 들고 기뻐하는 필리핀 청소년들(사진 왼쪽과 오른쪽 아래). 사진 오른쪽 위는 김다술 신부가 산 창코 지역의 새로 지은 집에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



서울 청담동 성당에서 기증받은 태블릿 PC 160대를 필리핀 요셉의원에 보내왔다.

청담동 성당 권혁준 부주임 신부는 지난 3월 23일 서울 필리핀 요셉의원 사무실로 태블릿 PC를 직접 전달하고, “양장욱 본당 주임신부님이 수술로 팔을 절단한 여자아이가 필리핀 요셉의원 장경근 원장신부에게 태블릿 PC를 사달라고 했다는 요셉의원 소식지 기사(본지 119호 http://www.josephclinic.org/community/page02.html?jb_code=50&jb_idx=1473&search_key=&search_keyword=&page=)를 읽고 필리핀 빈민촌 아이들을 위해 기증토록 했다”고 말했다.

아멜리아라는 필리핀 여아(15)는 암세포가 어깨까지 전이돼 그만 팔 하나를 절단해야 했다. 평소 팔이 아파 항상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던 아멜리아는 퇴원 후 장 신부에게 처음으로 웃으면서 “온라인으로 엄마의 유아용 옷 판매를 돕겠다”며 태블릿 PC를 사달라고 했다. 그 웃는 얼굴을 본 장 신부는 몹시 기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태블릿 PC를

사서 선물했다.

4월 말 필리핀 요셉의원으로 운송된 기증 태블릿 PC는 그동안 산 마태오 마을의 공부방에 30여 대, 클락 마을 본당에 40대 그리고 필리핀 요셉의원 장학생들과 현지 학생들에게 지급됐다.

‘필리핀 요셉의원 마당에 아이들 위한 공부방 마련할 계획’

필리핀 요셉의원에서는 부지의 마당 앞쪽을 확장해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지난 3월 15일 부임해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김다술 부원장 신부는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빨래나 청소를 하거나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거나 또래와 사귄 시간이 없다”며, “저녁 때 틈을 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신부는 “아이들이 공부방을 만들 장소와 운영 시간 등이 확정되면 다목적 공부방 겸 쾌적한 만남과 사귀의 장소로 만들어 아이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



복음 묵상 | 임지에서 다지는 각오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요셉의원에 부원장으로 있는 김다솔 야고보 신부입니다. 어느새 이곳 필리핀 요셉의원에 온지 4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이곳은 한국과 많은 면이 달랐습니다. 날씨며 건물이며 사람까지 많은 것들이 낯설게만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은 그저 시간을 지나보내기만 해도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보다도 필리핀 요셉의원에 오기 전부터의 가장 큰 걱정은 이곳에서 맡겨진 직무를 잘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필리핀 요셉의원이 하고 있는 사업은 네 개가 있습니다. 먼저 환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 및 약 처방, 수술지원이 있고, 이어 근처 지역 260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매일 이루어지는 무료급식사업, 선종하신 한정관 신부님의 유지를 잇는 집 지어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50여명의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을 빈틈없이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뿐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데에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만나기 쉽지 않았던, ‘나와는 다른’ 삶을 사는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빈민촌 처음 방문하고 큰 충격 받아

앞서 말씀 드렸듯이 필리핀 요셉의원은 현재 세 군데, 260명 아이들의 점심을 매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 받았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강 주변에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강 주변 땅은 주인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있더라도 싼 가격에 임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것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물은 이미 공장 폐수로 인해 검게 변한 지 오래입니다. 고기가 살아야 할 물에는 쓰레기와 악취가 가득하고 사람 몸에도 닿지 못할 기피 대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땅에라도 사람들은 다닥다닥 몰려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위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쓰레기는 아무 곳이나 버려져 있고, 동네에 개와 고양이는 어찌나 많은지 똥과 오줌이 길가에 널려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오는 집은 찾기 힘들어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물을 사와서 받아놓고 쓰기도 합니다. 전기는 겨우 들어오지만 전선도 여기저기서 끌어와, 골목을 걷다 보면 어느새 머리에 닿을 만큼 열기설기 되기 일쑤입니다. 여기 사는 이들의 수입은 턱턱지 못합니다. 이들은 건

설현장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태워서 숯을 만들어 먹고 살거나,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쓸만한 것들을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기보다는 집에서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서,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게 되니 참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을 대해야 할까, 내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웃이 될수 있을까.’

‘한대의 정신’을 살자

사실 이런 생각은 반만 맞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환경과 사람에 적응할 수 있을까만 생각해 왔지만,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제가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의 사람들을 제 안으로 맞아들

이는 것이었습니다. ‘환대’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낯선 이를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마저도 하느님의 자녀이며 구원이 열려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도 환대의 정신을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는 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나아가야 할 곳은 제자들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끝까지였습니다.

필리핀에서 만나는

김대건 신부님의 위안과 힘

저는 이곳 사람들에게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비록 제가 필리핀 요셉의원이라는 곳에 왔지만 저에게도 이곳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이곳에서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 이웃이 되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온 이방인이 아니라 이곳 사람이 되고, 이곳의 삶을 살기 위해 왔습니다. 때문에 저 스스로부터도 이곳 사람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동네’가 아니라 ‘우리 동네’가 되고, ‘이곳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에 있어 위로가 되고 모범이 되

는 분을 이곳 필리핀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국 사제들의 주보성인이신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가 필리핀에 남겨져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서는 최양업 신부님과 신학생 시절 이곳 마닐라와 롤롬보이라는 곳에 머무르시며 공부하셨습니다. 고향에 대한 향수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신부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망고나무 밑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받으시고는 슬픔에 잠기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에게도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의 삶은 더더욱이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고, 앞으로 만나게 될 고국의 신자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힘들이가 아니라 만나게 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키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다지는 각오는 어땠을지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히 7월을 맞이하면서 김대건 신부님의 축일과 함께 더욱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머나먼 필리핀에서 먼저 이곳에 계셨던 신부님의 모습과 함께 큰 위안과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어느 곳이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곳, 아니 제가 사는 우리 동네에도 분명 부르심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을 찾아오는 환자들 안에, 심지어는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안에 분명 부르심이 함께 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앞으로의 여정을 잘 걸어나가겠습니다. +

+ 2022년 4월 ~ 5월 신규 후원회원(13명)

- 가브리엘라 ● 권태형 ● 김경식 ● 김난자 ● 김해경
- 김혜진 ● 박현지 ● 이미자 ● 이승재 ● 임선희 ● 정혜진
- 최현철 ● 홍기욱

+ 2022년 4월 ~ 5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708명
- 타병원 처방전 제출시 약처방 지원 270명 ● 급식 9,485명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2022년 5월 현재)

- 진료 86,882명 ● 급식 421,882명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 미사 안내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1:3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2022. 4~5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

“그리스도교 불모지 파키스탄에도 하느님 말씀이 깃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 우르두어 성경 봉정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파키스탄 성서위원회(CBCP) 임원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한국에서 출판된 우르두어 성경을 봉정하는 모습(2022년 1월 23일).

국성회와 파키스탄의 인연은 2018년 5월 29일, 파키스탄 가톨릭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총무 에마누엘 아시 신부와 파키스탄 평신도 신학협회 알리시바 자베드 회장, 대전 교구 윤영중 신부가 국성회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방문자들을 통해 전해들은 파키스탄의 가톨릭 현황은, 먼저 가톨릭 신자가 약 220만 명으로 파키스탄 총인구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2018년 기준). 방문자들은 신자 수를 더 늘리고 하느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 보급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3~4가구당 1권꼴로 보유하고 있는 현지 우르두어 성경을 1가구당 1권이 되도록 보급하는 것이 파키스탄 주교회의의 당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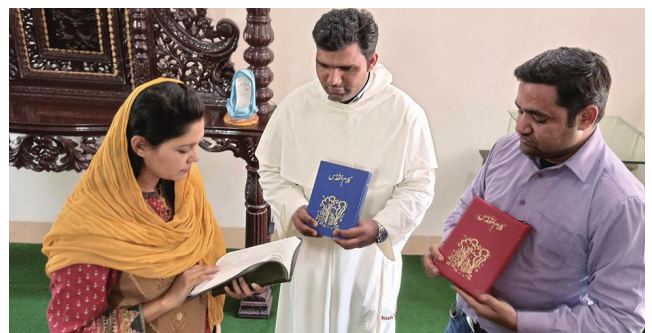
파키스탄 주교회의는 지금까지



외국으로부터 두 번의 후원을 받았다고 한다. 2007년에 대한성서공회의 후원으로 한국에서 출판된 성경 5만 권, 2011년에 독일의 후원으로 중국에서 출판된 성경 7만 권을 지원받았다. 파키스탄 주교회의는 지원받은 성경 12만 권을 원가의 반값에 각 본당으로 팔았고, 본당에서는 신자들에게 무료로 보급했다.

주교회의는 성경을 판 수익금으로 부족하나마 우르두어 성경 번역비와 편집비, 그에 필요한 장비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다.

에마누엘 신부는 2018년 국성회를 방문하면서 세 번째 후원, 즉 우르두어 성경 7만권 출판 지원을 요청하였다. 성경 지원 업무는 몇 가지 문제로 2년 정도 지체되다 2020년 가을 무렵 재개돼, 파키스탄 주교회의는 국성회와 국내의 다른 가톨릭 단체로부터 성경 인쇄 후원금을 지원받았다. 이 지원금으로 2021년 10월 대한성서공회에서 우르두어 성경 75,040권을 인쇄해 그해 연말과 2022년 2월 말 두 차례에 걸쳐 파키스탄 현지에 성경을 보낼 수 있었다. 처음 요청했던 7만 권을 초과한 75,040권이 출판돼 더 많은 파키스탄 신자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게 됐다. +



우르두어 성경을 받고 봉독 행사를 하고 있는 파키스탄 현지인들.

국성회에서는 2020년 11월 24일 파키스탄 주교회의에 우르두어 성경 인쇄 보조금 미화 1만 달러를 후원하였습니다. 파키스탄 주교회의는 국성회 외에 한국주교회의, 독일, 영국, 이탈리아의 여러 가톨릭 단체로부터 약 42만 달러(국성회 후원금 포함)의 인쇄비용을 후원받았습니다.



→ 페루에서 온 편지

“페루의 빈곤 가정 청소년들에게 성경 후원해 주세요”



개인별 성경이 없이 강사가 강단에서 성경을 들고 강의할 때의 모습. 왼쪽 아래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후원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페루 리마 인근의 만차이 본당과, 본당 내 11개 공소를 대상으로 사목 중인 김영미 효주 아녜스 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2년 만인 2022년 3월부터 대면 교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로사리오의 성모(Virgen del Rosario)’공소에서는 첫영성체 어린이 125명과 견진반 청소년 90명이 교리공부에 정진하고 있으며, 모두가 좋은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시작하기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모든 대상자들에게 성경책을 꼭 지참하여 오라고 당부하였는데, 많은 이

들이 가난해서 성경책을 집에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개중에는 개신교나 다른 종파들의 성경책을 들고 와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가톨릭 교회의 성경 보급이 시급함을 깨닫게 돼 방법을 모색하다가 첫영성체반, 견진 교리반, 영세반 및 그 부모님들을 위한 성경을 확보하기 위해 국성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첫영성체반 어린이와 견진교리반 청소년들은 교회의 미래로서 성경 보급을 통해 자주 성경을 읽고 접하게 되면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좋은 온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하느님의 섭리에 감사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

2022년 4월 5일 페루에서

김영미 수녀 드림



페루 현지로 도착한 성경 박스들을 김 아녜스 수녀가 살 펴보고 있다. 오른쪽은 받은 성경을 읽고 있는 아이들.



☞ 국성회에서는 위 요청에 따라 2022년 4월 22일 김영미 수녀에게 스페인어 성경 300권(작은 크기 성경 100권, 청소년용 성경 100권, 일반 성경 100권. 소요비용 \$8,537(=10,716,500원))을 후원하였습니다.

2년 만에 ‘국성회 후원 미사’ 재개

지난 6월 14일 오전 10시 반, 영등포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홍근표 신부의 집전으로 만 2년 만에 국성회 후원 미사가 봉헌됐다. 이날 미사에는 국성회 후원회원과 봉사자 17명이 참석해 함께 미사를 올리고, 지난 2년 간의 국성회 성경보급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요셉의원과 필리핀요셉의원, 국성회를 관할하고 있는 홍



본원 홍근표 신부가 6월 14일 3층 경당에서 국성회 후원회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신부는 미사 강론에서 “성경을 접해보지도 못하고 세속에 찌들어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은 얼마나 큰 선물일까 하는 생각으로 성경 보급에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특히 혼자서 몸으로 발로 뛰시면서 국성회를 성장시켜오신 이문주 신부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홍 신부는 “여러분들이 계속 기



도해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미사 후 모임에서 국성회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약속한 홍 신부는 이번 하반기 중에 국성회 고문인 이문주 신부와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하고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국성회는 앞으로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후원회 미사와 모임을 갖게 된다. +



후원회 미사 알림

다음 국성회 미사는 7월 12일(화) 오전 10시 반에 서울 영등포역 부근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약도 참조 및 전화 문의 요망.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 (2022년 4월~5월)

●강상훈 ●고현수 ●김금재 ●김낙기 ●김만길 ●김명숙 ●김명희 ●김범준 ●김병희 ●김성권 ●김영추 ●김영환 ●김윤순 ●김은애
●김진우 ●김준희 ●김현경 ●김현숙 ●나삼균 ●문경호 ●민영진 ●박소향 ●박언빈 ●박은숙 ●박종대 ●송미경 ●송보영 ●신해경
●양영실 ●오세형 ●오영신 ●윤영순 ●윤용식 ●윤종구 ●윤창현 ●이강득 ●이미순 ●이상현 ●이신애 ●이용애 ●이유진 ●이은행
●이장순 ●이재청 ●이정석 ●이정희 ●이종대 ●이지현 ●이향희 ●이현옥 ●이현규 ●이혜순 ●이희인 ●임한미 ●전대영 ●정병옥
●조용덕 ●조하영 ●조현순 ●진석실업 ●최두혁 ●최명옥 ●최송원 ●최원남 ●하금태 ●홍성실 ●홍지원 ●황세희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 (2022년 4월~5월)

●김 경 ●김동호 ●김원호 ●박우준 ●박준병 ●백성호 ●오창선 ●유경춘 ●이계호 ●이문주 ●임상무 ●정순택 ●조인기 ●최광희
●최명근 ●최정훈 ●한정화 ●양양성글라리아수녀원 ●익명희망자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 - 일반 (2022년 4월~5월)

●이강림 ●최현철 ●허 근 ●익명희망자

2022년 4월~5월 후원금 내역 : 9,734,000 원

+ 국성회 후원 방법

1. 지로용지 신청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로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재)천주교서울대교구
국민은행	364301-04-106412	(재)천주교서울대교구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 마태 5,3,7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코올중독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부설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서울 요셉의원과 필리핀 요셉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0여 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베풀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후원 방법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서울가톨릭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111-13-04699-8	서울가톨릭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서울가톨릭요셉의원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요셉의원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목욕서비스

시간 월~금요일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

장소 1층 목욕실



법률상담

상담 예약 문의 전화 070-4688-3413
(오후 1시~5시 전화 연결 가능)

▼ 아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합니다.



식사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장소 1층 식당



이·미용서비스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1층 현관



단주모임 (A.A 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5시 30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8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영화포럼

시간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1시 30분~4시
장소 4층 도서관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4층 도서관



성경공부

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4층 휴게실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